예배 및 모임안내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Zoom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8시	Zoom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주일 예배 봉사위원

	10. 24	10. 31	11. 07
대 표 기 도	김영희 권사	정용현 집사	통성기도
성 경 봉 독	김영희 권사	정용현 집사	김민혜 자매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1. 감사 – 설교해주신 홍성훈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예배 전 찬양 – 주일 오후 1시 50분부터 시작합니다.
3. 말씀 나눔방 – 욥기서 묵상 중입니다(담임목사에게 개인적으로 신청해주십시오)
4. 담임목사 동정 – GMS 지역대표회의 참석으로 한국을 방문하십니다(10월 13일~11월 6일)
5. 등록하신 교우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 드립니다.

교우동정

등록	류연진 자매(시각디자인 전공) 이동현 형제(산업디자인 전공)
등록	조영재 형제(작곡 전공) 장래황 형제(작곡 전공)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십 일 조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팬대믹 상황에서도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2021-42 2021년 10월 17일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벧전2:3)”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Church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반주 이 세 현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송 영	Chor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정용현 안수집사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 532장	다같이
기 도	Gebet	김복자 권사
성경봉독	Predigttext ·····막 10 : 46 – 52(신p72)····· (Markus 10:46-52)	김복자 권사
설 교	Predigt ·····주께 나아가는 자의 행복·····	홍성훈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 539장	다같이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정용현 안수집사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정용현 안수집사
축 도	Segnungsgebet	홍성훈 목사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묵상으로 대신 합니다.**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김영희 시무권사

마하샤바, 하나님의 청사진

Canada에서 HFC 금융기관의 지점장으로 5년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은 나는 미국 Houston에 있는 Allied Texas은행에 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연속 승진에 실패했습니다. 미국에 온 뒤로 은행원 전 단계인 훈련원에서 연이어 승진에 실패하자 캐나다에서 지점장이었던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진 나는 하늘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고 "왜죠? 도대체 왜죠"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외면하시듯 아무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어느새 아내가 내 옆에 와서 '여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믿어야 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어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잠자코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번 승진에서 탈락 후 스스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모습이 역력했었나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축복받은 자이고, 승리하는 자이다. 고 외치며 행동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당신을 더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때 아내의 말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나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내맡겼습니다. 두 번째 승진에서 탈락한 날이 내 의지의 환도뼈가 어긋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세워놓으신 그분의 계획 즉 하나님의 '마하샤바(청사진)안으로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혼혈아인 나를 미국의 다민족을 위한 주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서막이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건축가 하나님의 청사진 / 박철수 목사
(뉴라이프 침례교회 담임)

*** 고난 당하는 그리스도인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 – 故 **하용조 목사** –

브레멘한민교회
Bremen Hanmin Church